

❖ 아모스 7 장, ‘아모스가 본 3 가지 환상과 아마샤의 대항’

들어가기

본 장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해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5 가지 환상 중에 3 가지 환상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하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던 아모스를 모함하며 몰아내고자 했던 뱀엘의 제사장 아마샤의 대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 주신 3 가지 환상들 (1-9 절)

1)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 주신 첫 번째 환상은 _____ 재앙이었습니다. (1-2 절)

- 우선 1 절 후반부와 2 절 첫 부분을 다시 주목!

‘…,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①.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 곧 하나님께서 재앙에 쓰실 메뚜기 때를 만드셨다는 것!

-> 이것은 곧 북이스라엘에 임하는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것을 의미!!

②. 그럼 이 메뚜기들이 땅의 풀을 다 먹기 시작한 때는 언제인가?

->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 곧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다 거두고 난 후, 다시 두 번째 뿌린 씨가 움돋을 때’를 의미!

->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물을 다 없애신 것이 아니라 미리 일부를 남기셨다는 것!

-> 여기서 다시금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됨!!

③. 이런 메뚜기 재앙의 환상을 본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음!! (2 절)

‘…,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 원래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유다 사람임!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북이스라엘에 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 (참고로 지난 시간까지는 무서운 심판과 책망의 말씀만 전했음!! (물론 간절한 선지자의 권면의 말씀도 포함!!))

-> 그러나 이제는 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

➤ 참고로 누가 선지자인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선지자! (벧후 1:21)

-> 선지자는 단순히 말씀만 전하고 잘못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죄악을 대신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중보자로써의 삶을 살아야 함! (ex: 모세)

-> 특별히 복한을 생각하며 아모스처럼 항상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자!

- ④. 하나님은 이런 아모스 선지자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3 절)

->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중보기도에 항상 힘쓰는 성도들이 되자!

- 그럼 첫 번째 환상, 메뚜기 재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 ①. 환상 그대로 하나님께서 메뚜기 때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지만, 이 재앙으로 두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게 하실 것이라 해석! (ex; 요엘 선지서의 증언!)
- ②. 메뚜기 때는 수많은 앓수르 군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것이라 해석!

- 2)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은 큰 ____ 환상이었습니다. (4-6 절)

- 우선 4 절 다시 주목!

‘…,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 ①. 먼저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한다’는 말씀을 다른 성경 (예: 표준 새번역)은 ‘불이 깊이 흐르는 지하수를 말리고, 농경지를 살라 버린다’로 해석했음!

-> 곧 ‘큰 불’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뜨거운 가뭄 재앙을 의미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참고로 가뭄 재앙은 메뚜기 재앙보다 더 크고 심각한 재앙이란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범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 (예: 애굽에 내리신 10 가지 재앙)

- ②. 중요한 것은 5-6 절 말씀을 보면, 이때 아모스 선지자는 처음 환상 때처럼 동일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의 재앙을 멈추어 주셨다는 것!!

->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인 중보기도가 필요함!

- 그럼 두 번째 불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 ①. 환상 그대로 하나님께서 불 같이 뜨거운 가뭄의 재앙을 북이스라엘에 내리신다고 해석!
- ②. 앓수르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모든 성읍들이 다 불타 폐허가 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것이라고 해석!

- 3)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환상은 _____ 환상이었습니다. (7-9 절)

- 우선 7 절 다시 주목!

‘…,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 ①. 우선 ‘다림줄’이란 벽이나 건물을 세울 때, 벽과 건물이 기울지 않고 똑바로 견고하게 설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줄자를 의미! (영/번: ‘a string with a weight tied’)

- ②. 그런데 이 다림줄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서 계시다는 것!
-> 먼저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 a. 하나님께서 다림줄(진리의 말씀과 율법)로 세운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상징!
- b. 문자 그대로 다림줄로 견고하게 세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상징!!

- ③.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손에 든 다림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9 절)

‘…,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8-9 절)

- 그럼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 ①. 우선 3 번째 환상에서 주목할 것은 아모스의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의 용서도 없다는 것!!
-> 개인적으론 아마도 아모스는 기도했겠으나 두 번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들만 찾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완전히 확정하신 것!!

- ②. 여기서 참고로 몇몇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처음 두 번의 환상에서 아모스의 기도로 재앙이 멈춰진 것은 앗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두 번이나 공격했으나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은 것으로 실제로 성취되었다고 해석!!

- a. 앗수르의 첫 침략 -> 므나헴 왕 때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 이루어짐.
- 그러나 므나헴 왕이 수많은 조공을 바치자 본국으로 돌아감! (왕하 15 장 19 절)
- b. 앗수르의 두 번째 침략 -> 반앗수르 정책을 시도한 베가 왕 때, ‘디글랏 빌레셀’에 침략!
- 그러나 ‘베가’만 죽고, ‘호세아’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후 돌아감! (왕하 15 장 29 절)
- c. 앗수르의 세 번째 침략 -> ‘살만에셀’이 침략하여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킴!! (왕하 17 장)

- ③. 여기서 다시금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무작정 악인을 용서하시며 기다려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의 말씀으로 심판의 때를 경고하시며 한시적인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주신 후 기다리고 계신 분임을 깨달아야 함!!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 복 있는 자는 회개와 용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임을 항상 기억하자!!

2. 아모스를 모함하며 대항하던 뽀엘의 제사장 아마샤 (10-17 절)

- 1) 우선 제사장 ‘아마샤’는 누구인가?

- ①. 뽀엘의 제사장들 중 ‘여로보암’ 왕에게 가장 신임을 받고 있던 제사장!
-> 아마도 대제사장 급에 속하지 않았을까?
-> 참고로 당시 뽀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섬기면서, 여러 우상들을 혼합해서 섬기고 있었음!

②. ‘아마샤’란 이름의 뜻은 ‘주께서 강하게 하신다’란 뜻!

-> 참고로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짐을 진 자’란 뜻!!

-> 누가 참 선지자요? 참 목회자요? 바른 신앙인일까?

- 단순히 외적으로 크고 강하고,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부한 자가 아닌 하나님 주신 말씀과 사명을 항상 묵묵히 지고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아닐까?

2) 그럼 뱌엘의 제사장 ‘아마샤’는 어떻게 아모스 선지자를 모함하며 대항하였나요?

①.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말씀들을 교묘하게 틀어서 그를 모함하며 여로보암 왕에게 고발함!

a. 10 절: ‘... ,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 Yes or No

b. 11 절: ‘... ,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 Yes or No (9 절)

c. 11 절: ‘... ,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 Yes or No

=> But!!! 아모스서의 핵심 주제는 5 장 4-6 절!!!

‘너희는 여호와를 _____ 그리하면 _____!’

②. 직접적으로 아모스를 공격하며 쫓아내고자 위협을 가함! (12-13 절)

a. 12-13 절: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뱌엘에서 예언하지 말라’

-> 앞을 내다보는 선견자라면 네 목숨을 걱정해서 빨리 도망가라고 협박!

-> 너는 유다 출신이니 북이스라엘 뱌엘로 오지 말고 유다에서나 예언 할 것!

-> 특별히 ‘거기서 떡을 먹으며’ 라는 말을 직역하면 ‘거기서 떡이나 구걸해 먹으라!’는 저주와 욕설에 가까운 말!

b. 13 절: ‘... ,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 이것은 뱌엘이 여로보암 왕의 통치를 받는 곳임을 강조하면서, 왕이 자신에게 준 공식적으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아모스를 쫓아낸 것!

➤ 곧 당시 아마샤는 아모스가 전한 말씀을 자극적이고 과장적인 말로 교묘히 바꾸고, 핵심적인 내용은 의도적으로 빼버리면서 아모스를 거짓말로 모함했고,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그를 위협하며 해치고자 했다는 것!!

3) 그럼 이와 같은 아마샤의 공격에 아모스 선지자는 어떻게 대응하였나요? (14-17 절)

①. 자신이 누구인지 정직하게 밝히며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증언함! (14-15 절)

a. 나는 선지자도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라!

b. 양 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만나셨고,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라 하셨음!

②.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대언함!

- a. 17 절: ‘…,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앞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 참고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주신 말씀이 참 가혹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샤 자신이 스스로 초래한 자업자득과 같은 결과임을 알아야 함!!

=> 특별히 16 절 주목!

‘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 곧 하나님은 그의 말대로 이스라엘이 아닌 아마샤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그가 아모스를 모함한 그대로 원수들이 침략하여 아내를 강제로 추행하고, 자식들을 칼로 죽이며 모든 재산들을 빼앗으며 망하게 할 것이라 선언하신 것!!

- 아무튼 결론적으로 당시 아모스는 자신을 모함하며 해치고자 한 벤엘의 제사장 아마샤와 인간적으로 싸우며 똑같이 그를 대적하려고 하기 보다는, 정직하게 꾸밈없이 자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그대로 증언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말씀들을 담대하게 대언하였다는 것!

-> 우리도 살면서 아마샤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을 받게 될 때에 아모스와 같은 믿음의 자세로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자!!

❖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서 든 생각과 결단한 내용들이 있다면?

❖ 중보기도 제목나눔